

지역차별언어 찾기 워크북



사투리 언제

고쳐?



시골

잘 다녀와



잡하네!

서울사람 다 됐네!

서울말



지역차별언어 바꾸기
프로젝트

어디서나

지역차별언어 찾기 워크북

목차

- 06 워크북 읽기 전, 체크리스트
: <지역에 대한 나의 언어 감수성은?>

1

들어가며

- 08 내가 쓰는 말이 지역을 차별한다?

2

지역 차별언어 찾기

모르고 하는 지역 차별의 말,
알면서 하는 지역 차별의 말

- 24 1부. 지역에 대한 언어 감수성 기르기
이것도 지역 차별언어일까?

1. 어디 사람이세요?
2. 충청도 사람은 속을 알 수 없어
3. 사투리를 고쳐라?
4. 서울 가야 출세하지!
5. 너네 지역에 ○○ 있어?

- 48 2부. 지역 혐오 몰아내기
지역 혐오표현은 왜 사라지지 않을까?

1. ○○지역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2. 광주는 여권이 필요해서….
3. “역시 그 지역” (범죄기사에 달린 댓글)
4. 안산드레아스?
5. 대구 코로나?

3

나가며

70

지역 차별언어,
틀구 찾을 수 있을까요?



76

워크북 다 읽었다면, 더 깊이 생각해보기
: 〈지역 차별언어 요소 찾기〉

부록

78

[부록1]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지역 차별언어
〈어디 사람〉 설문 결과

80

[부록2] 지역 차별언어를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책, 책, 책

☞ 워크북 읽기 전, 체크리스트

지역에 대한 나의 언어 감수성은 어느 정도일까?

시민 400여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지역차별언어

진단 체크리스트, 한 번 해볼까요?

 막대에 색을 칠해보세요

- ❶ “오 사투리 별로 안쓰시네요? 사투리 귀엽다!”를
칭찬처럼 말한 적이 있다.

☐ 아니요 ☐ 모르겠어요 ☐ 맞아요

- ❷ 사투리를 쓰는 캐릭터가 어수룩하게 보여지는 콘텐츠를 보면서
당연하게 여겨왔다.

☐ 아니요 ☐ 모르겠어요 ☐ 맞아요

- ❸ 서울에 사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 아니요 ☐ 모르겠어요 ☐ 맞아요

- ❹ 지역에서 온 사람에게 “○○은 있어? 소 키워?”라고 물어본 적이 있다.

☐ 아니요 ☐ 모르겠어요 ☐ 맞아요

- ❺ ○○사람인데 “서울 사람 다 됐네요!”라고 칭찬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

☐ 아니요 ☐ 모르겠어요 ☐ 맞아요

①~②: 사투리에 관한 나의 인식을 알 수 있습니다.

사투리에 대해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는지 돌아볼까요?

③~⑤: 서울 중심적인 표현을 사용하진 않았는지, 생각해볼까요.

⑥~⑦: 지역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어요.

⑧: 지역과 계급을 연결시키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봐요.

⑨~⑩: 지역 평등에 대한 실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⑥ 특정 지역 출신 사람과는 일하거나 함께 하기 불편하다고
생각하거나 말한 적이 있다.



⑦ 사투리를 쓰는 걸 보면 정치 성향을 알 수 있다.



⑧ 소득이 낮은 지역에 사는 것은 비난 받거나, 무시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⑨ ‘전라디언’, ‘(범죄는) 역시 그 지역’ 같은 지역차별표현을
인터넷에서 보면, ‘신고’를 누른다.



⑩ 지역차별 농담이나 언행을 하는 사람의 말에 정색하고 웃어주지 않는다.



1

PART

들어가며 : 

⊘ 내가 쓰는
말이 지역을 
⊙ 차별한다?

코로나보다 무서운 지역 혐오

지난해 초 발생한 코로나19는 여전히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은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례없는 전염병 사태에 여러 내홍을 겪기도 했다. 코로나19 첫 대유행이 벌어진 대구 지역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그 중 하나이다.

대구 지역에서 31번 확진자가 나타난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확진자 증가세는 대구를 향한 혐오와 차별의 근거가 됐다. 코로나19를 ‘대구 코로나’라고 부르거나 ‘대구 봉쇄’를 주장하는 게시글이 생겨났다. ‘대구·경북 주민 출입 금지’와 같은 실체적 차별도 벌어졌다. 전염병 사태가 지역 차별을 만들어낸 것일까? 아니면 우리 안에 숨어있던 차별의 기제가 터져 나온 것일까?

한국은 단일 민족을 주장하며 단결과 화합을 강조했다. 온 국민이 똘똘 뭉쳐 IMF 위기를 이겨냈고 2002년 월드컵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대한민국’을 외쳤다. 방송통신의 발달로 유행의 전파도 빨라서 지역적으로 문화의 차이도 적었다. 이런 나라에서 지역을 단위로 차별을 한다는 생각을 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최근 도쿄 올림픽에서 광주여대 출신의 한 금메달리스트에게 가해진 사이버 불링 **cyber bullying**은 우리 사회에 숨겨진 차별과 혐오를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가 되기 충분했다. 처음에는 그의 짧은 머리가 ‘페미니스트’의 증거라며 악성 댓글을 달던 무리는 그가 ‘세월호 배지’를 달고 있고 ‘여대’를 다니며 ‘광주’ 출신이기 때문에 ‘페미니스트’라는 황당한 주장을 이어갔다.

돌아보면 최근의 폭력 **abuse**과 차별은 이런 식이었다. 혐오는 복합적으로 발생했고 편견을 정당화하는 발언들은 제재 없이 유통되었다. 2012년 한 아이돌 가수가 광주 출신이라는 이유로 역시 사이버불링을 당했고, 프로게이머와 결혼한 배우 역시 광주 출신이라는 이유로 지독한 악성댓글에 시달렸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출신과 지역은 차별과 폭력의 근거가 되고 이러한 생각들은 언어표현으로 발화되고 있었다.

무관심 시대에 놓인 지역 차별언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 차별금지법에서 명시하는 차별 금지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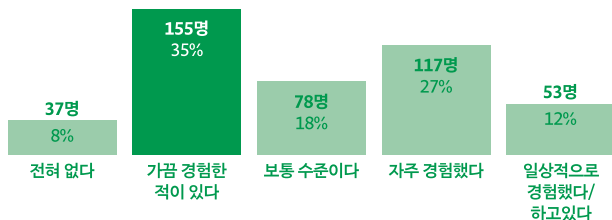
차별과 혐오는 우리 사회의 화두다. 차별과 혐오가 들불처럼 번지는 만큼, 평등에 대한 요청도 거세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은 중요한 인권 문제로서 특정 사유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헌법의 핵심 원리인 평등이념의 실현을 위해’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했다. 이후 20대 국회까지 총 7번의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지만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 차별 사유에 대한 논쟁 때문이다. 누군가는 성적지향을, 누군가는 학력을 두고 반대한다. 최근 21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된 차별금지법(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평등법(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에도 논쟁은 진행형이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무풍지대인 ‘출신 지역’의 존재다. 그간의 차별금지법에는 모두 ‘출신 지역’ 사유가 포함되었다. 왜 그럴까? 두 가지 함의를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지역 차별이 존재한다. 둘, 지역 차별 철폐만큼은 소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

그러나 지역 차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에 비해 지역 차별언어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적은 편이다. 학계에서도 지역 차별언어나 혐오표현에 대한 연구는 손에 꼽을 정도다. 포털 범죄 기사의 지역혐오 댓글을 연구한 양혜승 교수는 해당 논문에서 “기존의 연구 중에서 지역에 대한 차별언어나 혐오표현을 집중적으로 고찰한 경우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수도권과 대비되는 ‘촌’으로서의 지역에 대한 혐오표현, 그리고 전라도를 비롯한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표현의 연구가 미진한 것은 아이러니”라며 꼬집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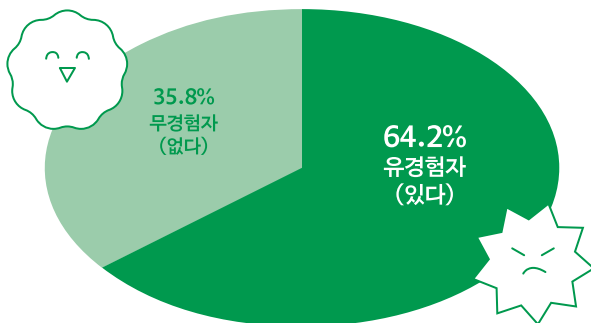
지역 차별언어는 무관심 속에서 자란다. 2021년 희망제작소가 ‘지역 차별언어’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진행한 설문조사에는 총 307명의 시민이 참여했는데, 이 중 92%가 지역 차별언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본 설문조사에는 20·30세대가 가장 많은 응답(53%)을 보여 젊은 세대 역시 지역 차별언어에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드러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진행한 <혐오표현 국민인식조사>(2019)에서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 1,200명 중 지난 1년 동안 혐오표현을 접한 사람은 10명 중 6명 이상(64.2%)이었고, 이 중 특정지역 출신 혐오표현을 가장 자주 접하는 것(74.6%)으로 나타났다.

차별 경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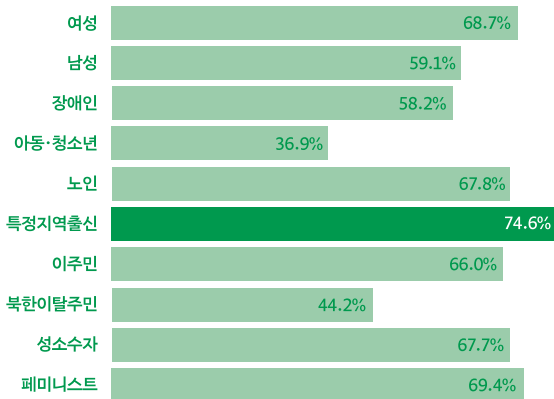
희망제작소, 지역 차별언어 설문조사, 2021

전반적 혐오표현 경험유무 (n=1200, 단위: %)



대상별 혐오표현 경험 빈도 (n=770, 단위: %)

국민 10명 중 6명 이상 혐오표현 경험,
특정지역 출신에 대한 혐오표현 가장 자주 접해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국민인식조사, 2019

지역 혐오표현? 지역 차별언어?

지역 차별언어에 대한 반응의 격차에는 몇 가지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첫째, 지역 차별언어는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 학계에서 지역 차별언어로 꼽는 ‘서울에 올라간다’나 ‘지방에 내려간다’는 표현, 또는 ‘여의도 면적의 00배’와 같은 서울 중심적인 표현을 문제로 느끼는 사람은 적다. ‘전라디언’이나 ‘홍어’와 같은 혐오표현은 문제로 여겨지지만, 10년이 넘도록 시정되지 않았다. 그 사이 지역 혐오를 드러내는 차별언어가 만연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의식 역시 둔감해지고 있다.

둘째, 지역 차별언어는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진행한 20·30세대의 혐오표현 및 차별 실태 조사^①에 따르면, 20·30세대는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표현은 정치인, 장년층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실제 20·30세대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1990년대 이전에 사용되던 ‘감자바위, 갯땅(쇠), 문둥이, 밥통, 빨개, 하와이’^② 같은 지역 차별언어는 젊은 세대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다. 정치권에서도 지역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지역 차별언어에 민감해졌고, 공식 석상에서 지역 차별언어를 꺾을 일도 줄고 있다. 사회의 자정 작용에 의해 지역 차별언어가 해소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 계속해서 새로운 지역 차별언어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다. 또한 범죄 기사에 ‘전.라.도’, ‘역시 경상도’ 등 단순히 지역을 명기하는 식으로 지역 차별언어가 은폐되고 있다.

①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 경험 조사 보고서〉
Focus Group Interview 표적집단면접조사 (2019)

② 이정복, 〈한국 사회의 차별언어〉 (2013), 소통

셋째, 지역 차별언어를 둘러싼 개념이 정리되지 않았다. 비슷한 사례를 두고도 ‘지역 비하’와 ‘지역 혐오표현’, ‘지역 차별언어’가 혼용되고, 넓게는 ‘지역갈등’, ‘지역감정’도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다. 물론 각각의 맥락과 개념은 다르지만, 지역을 대상으로 할 때 명쾌하게 분리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비교적 자주 사용되는 ‘혐오표현’과 ‘차별언어’의 개념을 살펴봐도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의에 따르면 혐오표현(hate speech)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1)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2)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을 뜻한다. 혐오표현은 차별의 원인 혹은 결과로 작동하기에 역시 차별언어로 볼 수 있다.

또한 ‘지역 차별언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이정복 교수에 따르면 차별언어란 “사람들의 다양한 차이를 바탕으로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편을 나누고, 다른 편에게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드러내거나 다른 편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언어표현”이다. 이를 지역에 대입하면 “지역 사람들을 편 가르기 하는 언어표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미국의 여성 법학자인 데버러 헐먼의 책 〈차별이란 무엇인가〉는 주로 법학의 개념에서 차별을 논하지만, 차별언어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통찰을 담고 있다. 〈차별이란 무엇인가〉에 의하면 차별이란 비하의 의미가 담긴 구분 짓기다. 여기서 비하는 상대를 낮게 대우한다는 것이다. 낮게 대우한다는 것은 상대적인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권력의 불균형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관점을 지역 차별언어에 대입하면, ‘지역은 사회적 소수자인가’라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다. 또한 차별 의미는 화자, 맥락, 사용된 단어에 의해 발생하는데 맥락, 즉 화용론적인 접근을 하면 차별언어를 정의하기란 더 어려워진다.

‘시골’이라는 단어는 맥락에 따라 차별언어가 되기도, 아니기도 하다.
이렇게 차별에 대한 정의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사회의 차별
현상을 고찰한 책 〈선량한 차별주의자〉의 문장에 기대게 되었다.

“다행히도 이런 말이 왜 모욕이 되는지
알아내는 방법은 어렵지 않았다. 당사자에게 물어보면
된다.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 〈선량한 차별주의자〉

지역 차별언어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당사자성’은
지역 차별언어의 현실을 돌아보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당사자의
경험으로 지역 차별언어의 새로운 경계선을 그려보는 것이다.

〈어디 사람〉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희망제작소의 〈어디 사람〉 프로젝트는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명제로 시작되었고, 지역 차별을 반영하고 강화하는 언어가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현실에 문제의식을 가졌다. 그리고 차별과 지역 차별, 차별언어를 둘러싼 맥락이 복잡한 현실을 인정하고 당사자에게 그 해답을 찾았다.

〈어디 사람〉 프로젝트는 2021년 3월 지역 차별언어에 대한 FGI(표적집단면접조사)로 시작, 인터넷 설문조사로 시민들의 이야기를 모았다. 그렇게 시민 307명, 희망제작소 회원 121명 등 총 450명의 지역 차별언어에 관한 경험과 생각이 모였다. 그 결과 생각보다 다양한 언어표현들이 지역 차별언어로 인식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홍어’, ‘개쌍도’, ‘전라디언’ 등 기존의 혐오표현으로 불리는 언어들은 물론, ‘○○이 고향이면 부모님이 농사짓겠네’나 ‘너희 지역에 스타벅스 있어?’와 같이 기존에는 차별언어로 언급되지 않았던 표현들도 차별언어로 새롭게 분류되었다.

〈어디 사람〉 프로젝트는 당사자성에 기반해 지역 차별언어를 모으고 크게 10개의 주제로 분류했다. 지역 차별언어에 대한 더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당대의 현실과 기사들도 더했다. 이 과정에서 한계도 존재했다. 우선 현재의 분류가 모든 지역 차별언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조선족에 대한 차별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은 〈어디 사람〉 프로젝트에 담기지 못했다. 크게 행정구역 단위로 이뤄지는 차별을 논하면서 아파트나 동 단위 등 미세하게 이뤄지는 차별도 심도깊게 다루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성은 차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지만, 객관적으로 차별을 논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어디 사람〉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더 많은 ‘당사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어디 사람〉 프로젝트가 완결된 단행본이 아닌 더 많은 참여와 생각을 유도하는 워크북을 지향한 이유기도 하다. 지역 차별언어에 대한 대안을 생각하면서 단순히 차별언어를 쓰지 말자는 권고가 아닌, 무엇이 차별언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했다.

〈어디 사람〉 프로젝트는 모든 국민의 평등을 위한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상호 존중과 배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어디 사람〉 프로젝트가 우리 사회에 먼지처럼 퍼져있는 지역 차별언어를 발견하는 창이자 평등한 지역 사회를 위한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

➔ **내가 생각하는 차별은 무엇인가요?**

차별

[illegible]

➔ 내가 생각하는 지역 차별언어는 무엇인가요?

지역 차별 언어

2

PART

지역 
차별언어 찾기 :

⊘ 모르고 하는
지역 차별의 말,
💬 알면서 하는
지역 차별의 말

1부. 지역에 대한 언어 감수성 기르기

이것도 지역 차별언어일까?

‘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평등은 권리다. 다양한 배경과 개성을 가진 국민들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만큼 그 차이는 존중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여러 영역에 걸쳐 다양한 차별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언어표현도 적지 않다.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언어를 정리한 <한국 사회의 차별언어>의 저자 이정복 교수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쓰는 ‘대머리’라는 말도 차별언어 중 하나다. 머리가 많이 빠진 사람이 자신의 신체적 특징 때문에 “흰하네! 눈부시다!”, “장가가고 싶으면 가발 써야지?”, “대머리가 정력이 세다던데 확실해?” 등의 말을 듣고 살아야 한다면 이러한 모욕은 차별이 된다.

모욕이 되는 언어가 차별이 된다면, 지역에 대해 흔하게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표현이 적지 않다. “서울에 올라간다”라는 말은 누구나 사용하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두는 지역 차별언어다.

“사투리가 귀엽다”나 “‘오빠야~’ 해봐” 역시 농담처럼 쓰이지만 차별언어가 될 수 있다. ‘차별의 의도가 없었다’라는 말이 변명처럼 쓰이지만 누군가 이러한 말들에 상처를 입고 차별을 느낀다면 존중과 배려의 차원에서라도 문제의식을 갖는 편이 좋다. 물론 이러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나쁘고 언어 사용을 꼭 시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도 언어를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지역 차별언어에 대해 생각해보고 다양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책 〈선량한 차별주의자〉에는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도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통찰이 담겨 있다. 불평등한 구조가 너무 공고하고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싼 말과 생각을 다시 훑어보는 작업 없이는 온전한 평등을 꿈꾸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세한 차별언어를 감지하는 언어 감수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언어 감수성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아 늘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 당사자의 말로 언어 속에 숨은 차별을 찾아보는 시간은 그 첫 관문이 된다. 우리가 흔하게 하는 말에서 ‘차별’을 발견하고, 배려 있는 언어 에티켓을 길러보자.

1. 어디 사람이세요?

“아버지 고향이 어디지” 물어보는 부장님,
그게 왜 궁금한가요? [한국일보]^③

대부분 어른들은 처음 만나면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 우리 세대는 출신 지역 묻는 걸 조금 조심스러워 해. 출신지로 사람을 판단하는 부작용이 커서 그래. 예를 들어 대구 출신이라고 하면 굉장히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야. “고향 어디냐” 묻고 같은 고향이면 반겨주는 건 괜찮아. 하지만 편 가르기가 되면 문제라고 생각해.

회사에 취직해 어른들과 얘기하면서 지역주의를 체감한다는 말을 들었어. 취직한 친구들이 “그 회사는 어느 지역 출신이 우세하다”고 말해주기도 하더라. 나는 “어느 대학 출신이 점령했다” 식의 학벌주의는 흔히 접하는데 지역주의는 아직 생소한 것 같아. 회사에서 자식 뺄 되는 부하에게 “부모님 고향이 어디냐”고 묻기도 한대. 부모님 고향이 왜 궁금할까? 내가 살던 곳도 아니라 어차피 난 잘 모르는 곳인데. 나는 살면서 다른 사람의 부모님이 어디 출신일지, 혹은 자식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궁금했던 적이 없거든.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

➔ 어디 사람이냐는 질문은 차별일까?

2019년 한국일보가 밀레니얼 세대인 인턴 기자들의 지역 차별 경험을 모은 대담 기사 중 일부다. 위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고향을 묻는 문화가 있다.

우리는 주로 첫 만남에서 ‘어디 사람’인지 묻는다. 아무것도 모를 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다. 나이를 물어 호칭을 정하기도 하고, 학교나 출신 지역을 물어 같이 나눌 애깃거리를 얻기도 한다. 그러나 출신 지역에 대한 질문은 익숙하면서도 불편하다.

“본가는 경남, 대학은 서울로 진학했습니다.

서울에서 입을 열면 바로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봅니다.

제가 살던 곳을 밝히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지만

밝혀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 〈어디 사람〉 설문 응답 중

특별한 맥락 없이 “어디 사람이세요?”를 먼저 묻는 건 실례가 될 수 있다. 나이를 묻는 것 혹은 출신학교를 묻는 것처럼 지나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일일뿐더러 사회에 존재하는 잣대로 상대방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을 알아야 할 때 고향이 꼭 중요할까? 고향 사람을 만나면 반가운 게 인지상정이기에 동향 사람인지 알기 위해 물어볼 수도 있지만, 지역에 대한 차별의 맥락과 권력의 작동이 한국 사회에 남아 있는 한 ‘어디 사람’인지 물어보는 일이 순수하기란 어렵다.

“필자도 공직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직장 선배들 중에 동향이 있어 반갑게 찾아다녔더니 타 지역 출신중 나를 아끼는 주위 선배들이 걱정된다며 너무 고향색을 티내지 말라고 충고(?)를 받은적도 있었다. 가장 곤혹스러운 질문이 고향이 어디냐고 물을때면 나도 모르게 주눅이들곤 했었다. 그러다가 호남출신 대통령시대가 되니까 거꾸로 영남출신들이 고향을 물어보니까 다소 움츠리는 자세로 답변하는 것을 목격하고 실소한 기억이 떠오른다.”

-〈전북일보〉‘고향과 인사차별’ 중^④

이처럼 한국에는 지역에 대한 편견, 그리고 지역으로 뭉치는 집단주의 문화가 남아있다. 집단주의는 학연, 지연 등 다양한 연줄로 묶인 집단을 중시하는 문화를 말한다. 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지역에 기반한 집단주의와 마주하게 되는데 이때 ‘어디 사람’이라는 질문은 곤혹스러운 상황을 만들곤 한다.

“어디 사람이세요?”라고 묻는 것, 그리고 지역에 따라 사람을 가늠하는 것은 쉽고 명쾌하다.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명쾌함을 경계해야 한다. 한 사람이 살아오면서 얻게 되는 다양한 정체성과 개성을 한 마디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앞으로 첫 만남에서는 ‘어디 사람’인지 묻기보다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면 어떨까?

첫 만남에서 나눌 수 있는 대화들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제일 좋아하는 산책로가 있나요?”

“어떤 책을 즐겨 읽으세요?”

→ 또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



2. 충청도 사람은 속을 알 수 없어

tvN 예능 <서울춘놈>(2020) 청주편

A : 충청도는 그런 게 있어. ‘이거 먹을래? 이거 가질래?’
라는 물음에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먹을래!’
이렇게 안 한다는거지.

B : 그래서 ‘너 뭐 가질래? 먹을래?’ 라는 질문에 “아니아
괜찮아” 일단 거절을 해. (자막으로 ‘형식적인
거절’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
한 번 더 물어봐줘야해. 적어도 세 번은 물어봐야해.

C : 제가 청주의 약속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청주의 약속이란 건, “5시쯤에 괜찮니? 시내에서
만날래?”라고 하면 ‘봐서’라고 대답하는 것,
또는 ‘그 때 가서 다시 얘기해.’

➔ 청주 사람은 형식적인 거절을 한다는 말, 차별일까?

tvN<서울춘놈>은 지역이 고향인 연예인들이 서울에서 나고
자란 차태현과 이승기에게 자신의 고향을 소개하고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다. 청주 편에 출연한 A, B, C는 모두 청주가 고향으로
자신이 생각한 청주 사람들의 성격을 이야기했다. 그 자리의 모두가
웃었고, 예능 프로그램의 한 장면으로도 어색하지 않았다. 방송이
 끝나고 해당 장면은 여러 클립으로 나누어져 유튜브에 올라갔는데,
그중 한 클립의 조회 수만 300만 뷰가 넘을 만큼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이 방송으로 인해 지역 차별언어를 겪었다는 경험담이 들려왔다.

“〈서울춘놈〉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충청도 사람들은 거절을 형식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물론 예능 프로그램이다보니 함께 웃을 수 있는 에피소드 정도로 다뤄졌는데요. 하지만 일부 사람들의 특징이 충청도 사람의 전반적인 특징으로 비춰진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실제로 방송 이후 주변 지인들이 “너 청주사람이잖아, 이거 형식적인 거절 아냐?”라고 말하거나 “너는 충청도 사람인데도 말도 행동도 느리지 않네?”라며 차별 섞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 〈어디 사람〉 설문 응답 중

충청도 사람 하면 대표적으로 “아부지… 돌… 굴러가유…”라는 유머가 있다. 산에서 돌이 굴러내려 가는 긴박한 상황에도 말이 느려 아버지가 돌을 피할 수 없었다는 유머다. 이처럼 충청도 사람 하면 으레 말과 행동이 느리다는 인식이 붙는다. 과연 그런가? 말이 빠른 충청도 사람은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말이 빠르면 빠르다고 또 한마디를 듣는다. “충청도 사람인데도 말이 빠르네?”

‘충청도 사람들은 속을 알 수 없다’라는 편견도 있다. 선거철에 여론조사를 하면 “될 사람이 되겠쥬…”라며 확답을 피하기 때문에 속내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충청도 사람이 말이 느리다는 인식에 대해 〈알쓸신잡2〉에 출연한 유시민은 “충청도는 삼국시대부터 삼국이 번갈아 가며 차지했던 지역이라 어느 한쪽 편을 확실히 들거나 자기 입장을 빨리 밝히면 죽을 수 있었다”라고 역사적 해석을 전하기도 했다. 그럴듯한 말이긴 하지만, 한 사람의 성격과 지역성을 엿보는 것은 지나친 편견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이 고향인 사람이 워낙 바쁜 일정 속에서 약속에 대해
 확답을 하기 어려웠는데, 약속을 잡을 때마다 “봐서” 혹은 “그때 봐야
 알 거 같아”라고 대답했더니 “너 청주 사람이야?”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약속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지역적 기질 때문이 아니다. 한 사람의 성격 혹은 상황에 의한
 대답일 뿐이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지역성을 기반으로 사람의 성격을
 구분하고, 이를 표현하는 차별언어가 있었다.

일찍이 한국의 심리학자 이진숙은 1959년 <팔도인의 성격에
 대한 선입관념>이라는 논문에서 성격 특성을 나타내는 25개의
 형용검색표^⑤ adjective check list를 작성하고, 한국인이 갖고 있는 지역
 고정관념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⑥

- (1) 서울 사람은 “깍쟁이고 간사하고 사교적이고 경우가 밝다”
- (2) 충청 사람은 “온순하고 예의가 있고 보수적이고 완고하다”
- (3) 호남 사람은 “간사하다”
- (4) 영남 사람은 “무뚝뚝하다”
- (5) 강원도 사람은 “온순하고 우둔하며 단순하다”

이처럼 60년 전에도 지역을 두고 성격을 구분했다. 지역을 기반으로
 성격을 나누는 것은 유혹적인 생각일지도 모른다. 인간은 범주로
 나누어 생각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잡한 인간을
 간단한 범주에 옥여넣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러한 일을 ‘편견’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편견은 언제든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⑤ 김용철, 조영호 「지역주의적 정치구도의 사회심리적 토대
 ‘상징적 지역주의’로의 진화?」 한국정당학회보 vol.14, 통권 29호
 pp.93-128, 한국정당학회, 2015

어디 사람 프로젝트에 들어온 지역 차별언어들

전라도 사람들은
뒤통수를 친다

서울깁쟁이

경상도 사람들은
보수적이다

대구 사람은 남편 감으로 빵점이다

내가 들은 편견

충청도는 박쥐같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한다

부산 사람은 말할 때
화가 많다

3. 사투리를 고쳐라?

“취업위해 사투리 교정…500만원 썼습니다”^⑥

부산의 한 국립대학에서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표준어 구사능력 향상과정’을 개설했는데, 이 강좌에서 표준어는 물론 개인별 억양과 정확한 발음, 표정관리 등을 교육한다. 특히 서울경기지역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이밖에도 사투리를 교정하려 학원까지 찾는 지방 수강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사투리가 취업에 불리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강한 만큼 학생들은 터무니 없는 비싼 수강료도 감당하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사투리를 고치려 말하기 ‘스피치’ 강습을 듣는 수강생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신문>

➔ 사투리를 고쳐야 한다는 말, 차별일까?

사투리는 꼭 고쳐야 할까? 이에 대한 논의가 인터넷상에서 이뤄진 적이 있었다. 발단은 2019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투리 자체해달라니까 죽어도 안 고치겠다는 같은 과 부산 애’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서울 소재 대학에서 같은 과 동기에게 사투리를 고쳐달라는 내용으로 “너만 경상도 사람이라 (사투리가) 조금 듣기 힘들 때가 있고 귀가 따가울 때도 있다”며 사투리를 고치지 않는 동기가 배려심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지역 차별”, “지역이기주의”라고 비판했고, 작성자는 곧 차별의 의도는 없었다면서도 “어차피 취직하면 고쳐야 한다”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사투리는 지역 방언, 지역어를 일상적으로 부르는 말로 흔히 표준어와 대비되는 지역의 언어를 일컫는다. 표준어는 교육이나 행정의 편의를 위해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표준으로 삼은 것이다. 서울 사람들도 서울 사투리를 쓴다는 걸 생각하면 사투리는 지역에 따른 언어적 차이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현실에서 표준어와 사투리는 차별 대우를 받는다. 표준어는 권장되지만 사투리는 고쳐야 한다. 사회적으로 표준어에는 권위가 부여됐지만, 사투리에는 부정적인 편견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표준어는 행정과 교육 현장의 표준 언어였을 뿐만 아니라 방송에서도 유일한 언어였다. 1958년의 방송 심의 규정은 ‘방송은 항상 표준말을 쓰되 알기 쉽게 바르게 써야 한다. 오락 방송에 있어서는 사투리를 쓸 수 있으나 그 지방 사람의 반감을 사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방송에서 항상 표준말을 써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투리가 공식 석상에서 금기처럼 여겨진 배경이다. 가끔 비치는 사투리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웃음거리로 쓰이거나 드라마 속 악당의 말투로 사용되며 열등한 이미지가 더해졌다.

일례로 1995년 인기 드라마였던 SBS <모래시계>에서 주인공은 서울말을 쓰지만, 악당들은 호남 사투리를 썼다. 당시 드라마의 인기와 영향력이 대단해서 이를 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모래시계’를 만든 감독·피디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였다.

최근 사투리는 귀엽게 여겨지거나 장난의 소재가 된다. “사투리 말해봐, 귀엽다”라며 사투리를 시키거나, 사투리는 발음이 다르다며 “블루베리 스무디 해봐”, “2의 e승 말해봐”를 시키는 것이다.

이런 경험을 당하는 지역 사람은 구경거리가 된 사투리에 모욕감을 느끼기도 한다. 장난으로 가볍게 넘기는 것은 배려의 부족일 수 있다.

“취업을 위한 면접 스터디를 하는 중에 스터디 팀원이 ‘면접에서는 표준어를 쓰는데 혼자 억양 있는 말을 쓰면 튀어 보이니, 부드럽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어요. 저 역시 그렇게 여겨서 억양의 고저를 없애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근무하는 회사라 그런지 면접 참여자들 모두 사투리를 썼어요. 덕분에 상대적으로 튀어 보이는 일은 없었지만, 사투리 억양을 의식했던 것도 차별의 경험이지 않을까 합니다.”

〈어디 사람〉 프로젝트가 만난 한 청년은 지역 차별언어가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취업 준비 경험을 떠올리며 사투리에 대한 내면화된 차별을 알아차리게 됐다. 이처럼 지역 차별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지역을 둘러싼 차별의 구도가 당연하게 여겨질 정도로 오랫동안 학습되어 왔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의 언어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언어를 고치는데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상황은 평등한 것일까? 〈어디 사람〉 프로젝트에는 사투리로 인해 아르바이트나 학원 강사 등 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겪었다는 경험담도 들려왔다. 사투리가 태어나서 얻게 되는 생득적인 말임을 생각하면, ‘사투리를 고친다’는 표현은 정체성을 부정하는 차별이 될 수 있다. 사투리를 사용해도 괜찮다는 사회적 신호가 필요하다. 만약 현실적인 이유로 누군가 표준어를 배워야 한다면 ‘사투리를 고친다’는 표현보다는 ‘표준어를 익힌다’고 말해보자.

어디 사람 프로젝트에 들어온 사투리에 대한 지역 차별언어들

오빠야~
한 번만 해줘

사투리는 무식해보인다

서울말 이젠 잘하네?



사투리
많이 고쳤네

한 2~3년 있으면 표준어
쓸 수 있을꺼야

노래할 때는 사투리 안 쓰네?

야 너는 강원도 출신인데 왜
강원도 사투리 안써?

사투리는
비전문적인 느낌이다

너는 사투리 쓰니까
PT 발표는 하지 말아라

‘사투리’나 ‘방언’에 비하의 의미가 더해지다보니 최근에는 사투리 대신 ‘지역어’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행정용어에서도 ‘지역어’를 쓰고 있어요. 최근 국립국어원에서는 전국의 지역어를 모은 ‘지역어 종합 정보 누리집(dialect.korean.go.kr/dialect)’을 열기도 했어요. 지역어는 표준어에 없는 다양한 감정과 의미가 담겨있는 소중한 우리 문화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지역어, 모아볼까요?

예) ‘단디 해라’(일을 틀림없이, 야무지게 해라)
‘낮밥’(점심밥) …….

4. 서울 가야 출세하지!

tvN <응답하라 1994>(2013) 1화 중

“아따 우리 성나정이, 서울 사람 다 됐구나.
인자 서울 지리도 빠삭하고 커피도 야물딱지게
시켜볼고 마산 촌년이 출세했다?”

➔ ‘서울 가야 출세한다’는 말, 차별일까?

이 대사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 사람 다 됐다’는 말이 과연 칭찬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맥락에 의하면 촌년이 서울 지리도 잘 알고 어려운 커피 메뉴도 능숙하게 시키면 ‘출세’다. 물론 친구끼리 하는 농담이다. 그런데 왜 서울로 이주하는 것이, 더욱이 서울에 살고 익숙해지는 것이 출세하는 것일까?

<어디 사람> 프로젝트에는 “(남자친구에게) 시골살던 애가 날 만나고… 출세했네”라는 말을 들었다는 차별언어 경험담이 들려왔다. 이 역시 시골 사람이 도시 사람을 만나면 출세했다는 생각이다. 서울과 출세가 함께 쓰이는 것은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로 보낸다”라는 속담과 같은 맥락을 공유한다. 서울에 살아야, 서울 사람이 되어야 성공한다는 가치와 질서를 반영하고 있다. 이 말은 서울 중심의 차별적인 발언이면서, 실체적 해악이 되기도 한다. 지역에 가는 일이 ‘유배’, ‘실패’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SBS <라켓소년단>에서는 서울에서 5시간 거리의 지역 학교에 가게 된

배드민턴 코치가 “왜 나를 유배보내려 하나”고 말한다. 서울에 가는 일이 출세가 되는 만큼, 지역에 가는 일은 신분과 위세가 추락하는 일이 된다.

〈어디 사람〉 프로젝트가 만난 이혜란 씨는 ‘서울=출세’ 공식에 사로잡힌 언어 사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경기도 포천이 고향인 그는 치솟는 집값과 1인 가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서울 물가에 고통받으면서도 아등바등 서울에서 살려는 자신을 돌아봤다고 한다. 그 때 ‘서울에 올라간다’나 ‘지방에 내려간다’는 표현도 다시 보게 됐다.

“포천은 서울보다 위(북)에 있는데도 ‘서울에 올라갈게’라고 일상적으로 말했다. 반대로 ‘포천은 내려간다’고 말한다.” 서울은 지역보다 상위에 있는 존재라는 인식이 깔려있는 말이다. 이처럼 관습적인 언어 표현도 지역 차별언어가 될 수 있다. 또 ‘서울=출세’ 공식이 학벌에 대한 고정관념과 엮이면서 지역에 대한 새로운 차별도 만들어냈다. 바로 지역에 있는 대학교, 지방대에 대한 차별이다.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사…’ 등급표에 따라 대학의 서열을 출세우던 입시 문화는 그대로 지역에 있는 대학과 학생을 평가하는 잣대가 됐다. 취업난에 경쟁이 극심해지고, 소위 ‘인서울’ 대학을 졸업해야 취업을 잘 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학생들은 점점 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몰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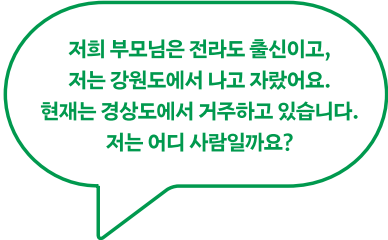
“얼마 전까지 동생이 대학 입시를 준비했다.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서울 사람들은 지방대는 죽어도 가기 싫어했다. 차라리 서울에 있는 다른 대학을 가지. 커트라인이 높은 학교라도 지방대는 가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이 있다. 국립대를 갈 정도여도 서울의 다른 사립대를 간다는 것이다. 그런 말을 들으면 ‘지방에 가면 인생이 망한다는 것인가’ 싶었다”

“내가 졸업한 학교에서 한 전공 대학이 경기 지역으로 옮긴다고 하니 학생들의 반발이 심했다. 멀지 않은 경기도로 가는 데도 시위와 서명운동이 일어났다. 똑같은 대학 이름과 커트라인, 교육 과정이고 경기도에 있는 캠퍼스 시설이 더 좋은데도 졸업장에 어떤 지역이 찍히는지가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때문인 것 같았다. 그래서 더 인서울 대학을 고집하게 되는 것 같다.”

- 〈어디 사람〉 프로젝트가 만난 청년들의 경험담

반면 지방대에는 ‘지잡대’라는 낙인이 붙었다. 과거 인정받던 지방거점국립대도 ‘지방대’의 낙인을 피하기는 어려웠다. 2020년 지방거점국립대 9곳 중 8곳이 학생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 위기가 온다”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 지방대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다. 지역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면서 ‘지방 소멸’은 다가오고 있다.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정치, 경제, 문화 등 많은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더 많은 기회와 양질의 일자리가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런 현실이 “서울에 가야 출세한다”라는 말과 회전한다. 언어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서울공화국’의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지역 차별언어는 사라지기 어렵다. 지역 차별언어에 대한 궁극적 대안은 어쩌면 지역균형 정책일지도 모른다.



저희 부모님은 전라도 출신이고,
저는 강원도에서 나고 자랐어요.
현재는 경상도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 사람일까요?



어디 사람 프로젝트에 들어온 서울 중심적인 표현에 대한 경험담

“어떻게 해서든 서울 소재 대학을
가야 성공하고 인간 대접을 받는다.”
마치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
될 거라고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께
받은 세뇌(?)는 오십이 되어서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인서울이 답이다? 학교도 서울!
직장도 서울! 집도 서울! 서울에
살아리랴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적한 도시(?)가 좋은데
왜 서울에 살아야 했세했다고
생각할까요. 서울에 살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어요!”

서울과 지방. 기실 서울도 지방의 하나이건만,
서울(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지방으로
통칭하여 부르는 것은 차별언어이며 특히
‘지잡대’같은 모멸성 언어는 사라져야 합니다!
지방선거, 서울지방법원 등 서울도 분명히
지방이라는 기표가 있음에도 자의적이고
관습적인 기의에 의해 서울을 지방과
분리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경상도 사람인데
“서울사람 다 됐네요”를
칭찬의 뉘앙스로 쓰는
사람들이 있다.

저는 서울에서, 그것도 학군이 좋다고 말하는 곳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한 지방국립대에 다니는데, 제가
출신을 밝힐 때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어?”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때마다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 대한 비하, 서울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지방으로 학교를 온 저에 대한 비하가 느껴질 때가 있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서울=출세’ 언어에 반영된 대한민국의 현실,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현실



대안

5. 너네 지역에 ○○ 있어?

〈어디 사람〉프로젝트가 만난 사람, 보석씨의 이야기

“여전히 농촌을 비위생적으로 여기거나 교통이 불편하다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거기서 어떻게 사냐’, ‘공기는 좋아도 친구도 없고 못 살겠다’고 말한다. 또 수도권 인프라와 비교하면서 프랜차이즈 카페가 있는지 묻는다. 수도권 중심의 사고로 지역에 잣대를 들이대고 평가한다.”

➔ ‘너희 지역에 스타벅스 있어?’라는 질문은 차별일까?

다양한 이주의 기록이 있는 보석 씨. 그는 진해에서 태어나 살다가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대학을 위해 서울에 와서 8년 정도를 살았다. 그리고 지리산에 정착한 지 이제 1년 남짓. 그는 서울에 있을 때 억양이 달라서 겪은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사투리를 쓰면 고향에 관해 묻는 일이 많은데, 고향을 대답하면 그곳이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내가 진해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거기가 어디냐’라고 묻고, ‘창원 근처다’라고 대답하면 ‘창원이 어디냐’라고 묻는다. ‘부산 근처다’라고 답하면 그제야 돌아오는 답이 ‘아, 경상도’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간다. 각각 다른 지역도 지명도가 낮으면 ‘시골로 통쳐서’ 이야기하는 게 오랜 관습이 된 것 같다.”

보석 씨는 수도권 중심의 미디어 환경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다수의 매체에서 수도권 중심의 콘텐츠를 내보낸다. 지역에서 보기에는 전혀 상관없는 소식도 있는데, (이런 수도권 중심의 미디어가) 결국 전국 지역에 대한 이해를 낮춘다고 본다.”

많은 방송 콘텐츠가 서울을 배경으로 한다. 이는 뉴스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에 모여있는 온갖 신문사와 방송사는 서울의 일과 지역의 일을 공정하게 다루지 않는다. 특히 국가 재난 주관 방송사인 KBS마저 재해 발생시 지역 보도에 소홀해 비판을 받았다.^⑦

미디어에서 지역이 비치는 일이 적다 보니, 지역에 대한 이미지는 80~90년대 <전원일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보석 씨는 이러한 낮은 인식에서 벌어지는 지역 차별언어를 들려주었다.

“여전히 농촌을 비위생적으로 여기거나 교통이 불편하다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거기서 어떻게 사냐’, ‘공기는 좋아도 친구도 없고 못 살겠다’고 말한다. 또 수도권의 인프라와 비교하면서 어떤 게 갖춰져 있는지 수도권 중심의 사고로 지역에 잣대를 들이대고 평가한다.”

‘지역에 ○○이 있냐’는 질문은 도시의 잣대를 획일적으로 들이대는 일이다. 특정 브랜드 상점이나 백화점이 없다면 그 지역은 시골인가? 개발의 논리로 우월과 열등을 나눈다면 위계화로 인한 차별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성을 담을 수 없다. 지역에 대해서 몰라서 질문을 해야 한다면, ‘너희 지역에 스타벅스 있냐?’는 아니면 어떨까.

⑦ KBS는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시 지역 지진 발생시에 드라마를 내보내는가 하면, 2019년 4월 4일 고성 대규모 산불 사태에도 재난방송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2020년 7월 23일에는 부산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3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지만 역시 정규방송을 했다. 화가 난 부산시민들이 KBS 시청자청원게시판에 ‘부산에서는 수신료 받아가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어디 사람 프로젝트에 들어온 ‘지역=시골’에 대한 차별 경험들

전국 모집 고등학교에 다니는데 ‘너네 지역에는 이거 없지?’라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서울이나 경기도에 거주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금방 ‘채 어디 지역이래’ 이런 말이 퍼지기도 하고, 학교에서 시골 출신 친구들에게는 동네 이름이 그 친구들의 별명이 되기도 했어요. 또 동네를 물어보고 ‘부자 동네 사네’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있고. 모두가 웃어 넘기기는 하지만, 글썄요.

제가 사는 곳은 정말 기본적인 시 단위의 중소도시입니다. 하지만 이 곳보다 생활수준이 더 나은 타 지역에서 오신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너네는 서울 가본 적 있니?”, “○○(지명) 혼놈” 등 유머인 척 하는 말이 종종 듣기 거북합니다. 서울까지 3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종종 놀러갈 때도 있고, 주변 친구들과 인근에 위치한 큰 도시도 자주 가고, 옛날처럼 다른 곳 가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정도도 아닌데 말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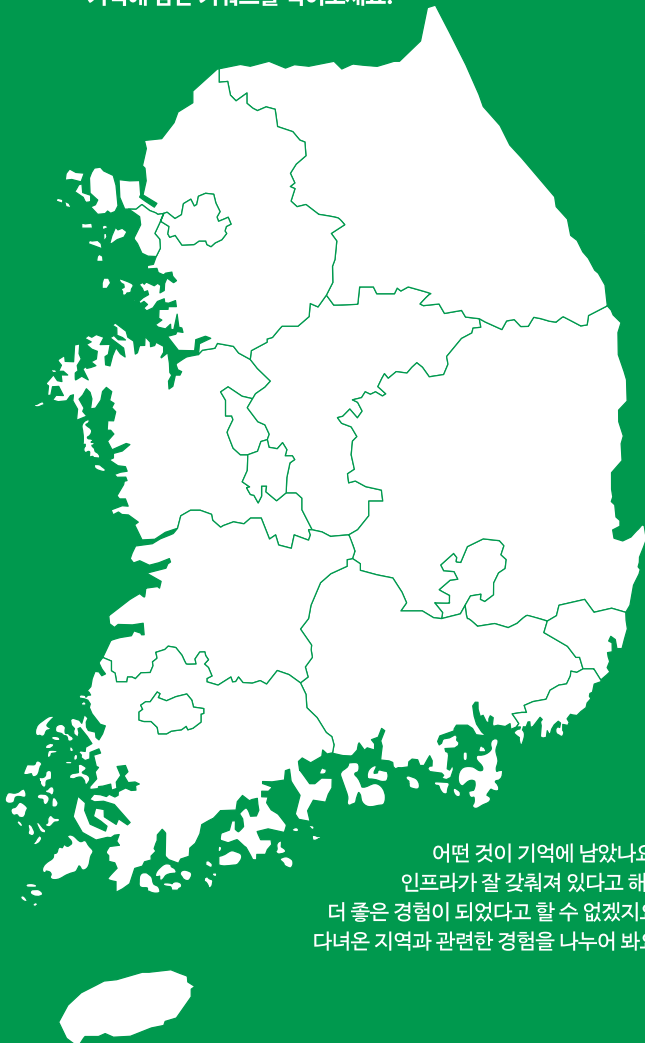
어 너도 진주에서 왔어?
그럼 ○○알아? 개도
진주에서 왔다던데?

대구에서 진주까지
2시간이나 걸려?
지방은 다 가까운 줄?

제가 사는 지역에 인프라가 없어서 불편한 점도 많고, (거기엔 그것도 없니?라는 말을 여러 번 들음) 서울에 가지 않고 시골에 사는 것에 대해 불쌍하다고 여기는 경험도 자주 있어요. 시골에 있으니 넓은 세상을 접하지 못해 딱하다는 시선들? 서울에 살면서도 편협한 세상 속에 사는 사람도 많을텐데 말이에요. 물론 서울에 가면 더 쉽고 편하게 여러 콘텐츠와 넓은 세상을 접할 수 있겠지만, 시골 산다고 그런 콘텐츠를 못 접하는 것도 아니고 정보화 시대에 서울이 아닌 지역에 산다고 명칭하거나 바보같은 선택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 지역에 대한 새로운 질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가 방문했던 지역을 아래 지도에 색칠해보고,
기억에 남는 키워드를 적어보세요.



어떤 것이 기억에 남았나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고 해서
더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할 수 없겠지요.
다녀온 지역과 관련한 경험을 나누어 봐요.

2부. 지역 혐오 몰아내기

지역 혐오표현은 왜 사라지지 않을까?

홍어, 전라디언, 손상님, 7시, 개쌍도, 쌍도남, 통구이, 토착왜구….

〈어디 사람〉 프로젝트에 들어온 지역 차별언어다. 이러한 표현들은 주로 인터넷에 떠도는 혐오표현으로 현실에서 듣는 일은 드물다. 그러나 인터넷 세계에서는 일상이다. 포털 기사의 댓글이나 SNS, 유튜브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혐오표현도 차별언어다. 혐오표현은 싫어하는 감정을 정당화하며 대개 표적집단이 도덕적으로 열등하다는 낙인을 찍는다. 과거의 지역 혐오표현은 ‘전라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며 지역민을 싸잡아서 비난했고, 지금의 지역 혐오표현은 범죄에 대한 혐오, 빈곤에 대한 혐오, 여성이나 이주노동자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기대 편견을 발화한다. 그리고 혐오표현은 이러한 편견을 반복 재생산하며 차별의 구조를 만드는 위험이 있다.

일베의 등장 이후 ‘홍어’ 같은 지역 혐오표현이 생긴 지 10년이 지났다. 그런데 이들이 사용하는 지역 혐오표현은 혐오나 차별의 표현으로 여겨지지 않고 ‘드립’으로 사용된다. 유머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 혐오표현을 유머처럼 사용한다고 해서 언어 뒤에 숨은 차별의 기제가 사라지진 않는다. 그 언어에 상처받는 지역 사람들이 있고,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처럼 지역 갈등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어디 사람〉 프로젝트는 분명한 혐오를 담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쓰이는 차별언어를 소개하고, 지역을 존중하는 언어 문화를 고민해보고자 한다.

1. ○○지역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EBS 다큐프라임 〈끝나지 않은 전쟁, 한국의 지역감정을 말하다〉

“전라도 사람들은 배신을 잘한다, 떼먹고 도망가길 잘한다, 주변에서 신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역에 일터나 산업 단지가 적다보니까 직장을 찾아서 서울로, 구로공단으로, 포항으로, 울산으로, 창원으로, 구미로 떠납니다. 가서 살다보면 빈 주먹으로 와서 온갖 기술을 다 배웁니다. 그래서 기술을 배우면 조금 익힐 만 하면 옆에서 월급 좀 더줄게, 우리 공장으로 와라, 이러면 몸 하나 의지할 곳도 없는 사람들이다보니까 옮겨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뺀 사람만 저것 봐라 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⁸⁾

- 이정현 전 국회의원 인터뷰 중

8) EBS 다큐프라임 〈끝나지 않은 전쟁, 한국의 지역감정을 말하다〉
(2015.09.09)

전라남도 곡성에서 태어나 보수정당의 이름을 달고 호남에서 당선돼 지역구도 타파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이정현 전 국회의원. 그 역시 전라도 출신이라 겪었던 차별의 기억이 있다. 그가 보수정당의 전략기획단장을 맡고 있을 당시 ‘우리 당의 주요 문건을 저쪽에 빼돌리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고 한다. 소위 ‘전라도 사람들은 뒤통수를 잘 친다’는 말 때문이다.

한국에서 지역감정은 ‘영호남의 갈등’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확률과 빈도로 따지자면 ‘반호남 정서’라는 설명이 있다. 그만큼 전라도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오래되었고 또 전국적이었다. 다행히 지금은 과거와 같은 편견이나 차별은 사라지고 있다지만, 종종 ‘전라도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을 듣게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왜 하필 전라도일까?

반호남 정서에는 그 배경을 추측하는 이야기도 다양하다. 한 축은 역사적 배경을 든다. 삼국시대 백제와 신라의 영토로 영호남 갈등을 설명하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백제 발언’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또 고려 태조 왕건의 훈요십조(勳要十條)를 전라도 차별의 기원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다. 훈요십조의 제8조가 ‘차현(車峴) 이남, 공주강(公州江) 외(外) 사람을 등용하지 말라’는 내용인데, 그 지역이 바로 지금의 전라도 땅이라는 것이다. 또 조선 시대 기축옥사(己丑獄事) 이후 전라도에 대한 차별이 생겨났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전라도에 대한 차별이 역사적으로 계속됐다는 증거는 거의 없고, 홍경래의 난에서도 보이듯 조선 시대 문제가 되었던 것은 서북지역에 대한 차별이었다.

또 다른 축은 근대 이후에 반호남 정서가 만들어졌다는 설명이다.

6·25전쟁과 분단 전후로 여수와 순창 일대에서 활동하던 빨치산들로 인해 북으로 향하던 적대감이 전라도로 향했다는 설이 있다. 또 60년대 이후의 ‘호남홀대론’과 ‘전라도민의 이주’라는 사회적 변화로

지역감정을 설명한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경부선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화 정책을 펼쳤는데, 전라도는 그 경제개발계획에서 소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미가(低米價) 정책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었다. 결국 농업으로 먹고살기 어려워진 다수의 전라도민이 서울 등 타지의 공업단지로 떠나게 되었고, 무일푼으로 온 외지인에 대한 차별적인 감정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전라도에 대한 정치적 낙인을 빼놓을 수 없다.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벌인 5.18광주민중화운동에 대한 탄압과 왜곡, 87년 민주화 이후 호남의 김대중, 영남의 김영삼으로 갈라진 지역구도는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망국적’ 지역주의의 발단이 되었다. 혐오가 통치의 수단인 것이다.

이처럼 전라도에 대한 편견은 역사적 굴곡의 잔재로 볼 수 있다. ‘호남의 이미지와 정체성은 물리적인 지정학적 영역이나 내부의 본질적인 속성에 의해서 아니라, 다차원적인 권력 관계 안에서 만들어졌다⁹⁾’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고 반호남 정서만 살아남아 전라도에 대한 차별언어를 생산하고 있다. 역사의 아픈 상처가 지역 차별언어로 남아서는 안 될 것이다.

9) 김봉국, 「1960년대 ‘호남푸대접’ 담론과 로컬리티」 역사연구 제31호, 역사학연구소 2020, 255-298

어디 사람 프로젝트에 들어온 전라도 혐오, 지역감정에 대한 경험담

군생활 할 때 ‘너는 전라도 사람 같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당시 전라도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고 물었더니 ‘이중인격자가 많다’는 얘기를 해서 기분이 좋지 않은 적이 있다. 그런 의미로 전라도 사람은 ‘더블백’이라는 말도 있다.



제가 결혼했을 때 시어머니가 웃으며 ‘전라도 며느리는 안 들어려 했는데’ 라고 말하셔요.

아버지가 전라도 광주, 어머니가 경상도 포항이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선거 때 많이 싸우겠네’, ‘집안이 시끄럽겠네’ 등 이야기를 합니다.

1985년 울산으로 이사를 갔고, 그 전에는 부산에서 살았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전라도가 고향인데 지역감정으로 어머니가 주변 분들에게 욕을 들은 듯 합니다. “전라도 땅도 안 밟아 본 것들이 어디서 욕을 해! 살아나 보고 그런 말하지!”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전주 출신 취준생 친구가 창원에 있는 모 회사에 이력서 넣으려고 하니까 옆에서 하는 말이 “그 회사에서 ‘전라도출신이니까 오지마!’ 하는 거 아니야?ㅋㅋ”



경상도 남자랑 결혼해서 지금은 전주에 같이 살고 있는데, 시댁식구들이 전라도에서 경상도 사람이 어떻게 사냐며 저한테 남편을 잘 부탁한다고 하더라고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자는 문구를 고향이 광주인 저와 동기 몇 명이 (인스타그램)스토리에 올렸는데, 별로 친하지 않았던 친구가 스토리 답장으로 “광주 부심 존나 부리네 ㅋㅋ”라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왜 부심으로 보였던건지, 그냥 시비거는건지 혼란스러웠어요. 지금 생각하면 저를 싫어했을 수도 있지만 광주라는 지역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전라도 사람은 가난할 수 밖에 없어.”
이런 말을 오랫동안 들어서인지 패배감이
나도 모르게 들곤 한다.



전라도에 대한 혐오표현 들어 본 적 있나요?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어떻게 행동했는지 적어볼까요?

이사, 결혼, 취업, 군대까지... <어디 사람> 프로젝트에는 인생의 다양한 국면에서 겪은 지역 차별언어가 모였습니다. 근거 없는 전라도에 대한 편견과 차별언어는 그들에게 상처였습니다. 차별언어에 단호히 대처해야 하는 이유, 누군가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2. 광주에 여권이 필요해서...

악의 없는 차별은 아직 덜 나쁠 뿐...
 뽕 난 악마의 공모자가 될 수 있다^⑩

해맑은 차별이 문제다. 지난 7월25일, SBS 스포츠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오즈TV>에 출연한 프로야구 해설가 안경현은 KIA 타이거즈의 진갑룡 코치와의 전화 연결 후 KIA의 연고지인 광주에 대해 “난 광주 못 간다. 가방에 항상 여권 있다. 광주 가려고”라 발언했다. 안경현이 정확히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광주에 가는 데 여권이 필요하다는 농담은 광주, 정확히는 전라도를 자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일간베스트 저장소’ 같은 극우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지역차별 발언이기도 하다.

- ‘위근우의 리플레이’ 중

전라도에 대한 혐오표현이 인터넷을 넘어섰다. 2019년 한 예능 프로그램이 전라도 출신인 송가인의 아버지에게 ‘전라디언’이라는 자막을 단 것이 대표적이다. ‘전라디언’은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가 ‘전라도인+인디언’을 합쳐 부르는 말로, 호남 지역인들을 비하하려고 만든 말이다. 또 ‘광주에 가려면 여권이 필요하다’는 표현 역시 전라도를 대한민국의 한 지역으로 인정하지 않고 별도의 나라로 분류하는 일베의 표현 중 하나다.

문제는 이러한 표현이 인터넷 세계에 워낙 넓게 퍼지다 보니, 그 출처와 의미에 대해서 모르고 쓰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위 기사에서 위근우 평론가가 지적하듯, 혐오표현에 있어서 무지를 허용하기 어렵다. 포털의 정치나 스포츠 기사에 ‘7시 그 지역’, ‘전라공화국’, ‘전라차지도’라는 댓글이 빈번하고, 유튜브에도 전라도에 대한 부정적 댓글이 적지 않다. 일례로 전라도에 사는 다둥이 가족이 출연한 콘텐츠에 ‘전라도라서 그렇다’며 다출산 혐오와 지역 혐오를 엮은 댓글이 달리는 게 현실이다. 또 <어디 사람> 프로젝트에는 대학생이 많이 사용하는 ‘에브리 타임’이라는 커뮤니티에도 전라도 혐오표현이 적지 않다는 경험담이 들려왔다.

인터넷에서 전라도 혐오의 발원지는 일간베스트저장소, ‘일베’다. ‘일베’는 원래 유머 사이트 중 하나로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서 삭제되는 게시물을 보관하기 위한 곳이었다. 디시인사이드는 지역비하나 소위 ‘패드립’이라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게시물들을 삭제하기 시작했는데, 일베에는 그런 삭제될 만한 콘텐츠들이 모였다. 일베는 모욕적인 발언을 소위 ‘드립’으로 유머화하고, 과격하고 용납하기 어려운 표현일수록 인정을 하는 ‘어그로’ 문화 위에 형성되었다.

여기에 일베의 극우적인 성향은 박정희나 전두환 독재정권을 우상화하고, 민주화 세력을 ‘종북’으로 낙인찍고 적대시하는 경향으로 이어졌다. 호남은 민주화 세력의 기반이고, 그들이 우상화하는 전두환에게 맞서 5.18민주화운동이 벌어진 곳이다. 일베 안에서 ‘종북=민주화=호남’이란 프레임이 작동됐고, 그들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물론 광주가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다며 소위 ‘무임승차론’을 펼쳤다. 현실에서는 사라져가고 있던 전라도에 대한 부정적 편견도 일베 안에서 혐오표현으로 부활했다. 일베는 2012년 전후로 한국 사회의 문제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지역에 대한 혐오표현들

감자	강원도 지역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
감자국	강원도 지역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
감자도	강원도 지역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
멍청도	충청도 지역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
개쌍도	경상도 지역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
통들통들	통구이와 부들부들의 합성어로, 경상도 지역 사람들이 떠는 모습을 빗대어 표현
홍어	‘전라도’ 지역 사람을 비하하는 말
7시	지도상 전라도의 위치가 7시라는 것을 빗대어 전라도를 지칭함
알보칠	‘알고보니 7시’의 줄임말로, 지도상 전라도의 위치가 7시라는 것을 빗대어 전라도를 비하하는 말
까보전	‘까고 보니 전라도 사람’의 줄임말로, 전라도 지역 사람을 비하하는 말
설라디언	전라도 출신이나 현재는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
탈라도	‘탈 전라도’의 의미로, 전라도 지역 사람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 경우에 사용
찌름찌름	전라도 지역의 사람을 비하하는 말로, 홍어 냄새가 난다는 표현
네다홍	‘네, 다음 홍어’의 줄임말로, 홍어는 전라도 지역 사람을 칭하는 속어
홍들홍들	홍어와 부들부들의 합성어로, 전라도 지역 사람들이 떠는 모습을 빗대어 표현

출처: 장소연(2017).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와 혐오의 문화정치>.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C~51쪽에서 인용. 원 저작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이제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도 학생들이 일베식 혐오표현을 쓴다. 한 고등학교 교사가 퀴즈 활동을 위해 아이들에게 팀명을 짓게 했는데, 학생 중 일부가 ‘전라 노이어’라는 팀명을 만들었다고 한다. 월드컵 독일 국가대표팀 골키퍼인 노이어는 경기 때 골대를 비워 비판을 받았는데, 이런 맥락에 전라도를 더해 지역 비하가 섞인 단어를 만든 것이다. (<일베 학생을 대하는 교사의 자세>)^⑩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언어가 어린 학생들에게도 번지고 있다. 온라인에서의 지역 혐오표현을 일부의 일탈로 여겨서 안 되는 이유다.

- ➔ 인터넷 기사에 다음과 같은 댓글이 달린 것을 보았어요.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림에 색칠해주세요.

ID : 지역차별러

흥어 깡깡이!!

재밌어요
 공유할래요
 아무생각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불쾌해요
 신고해요

ID : 혐오는 나의 힘

휴 다행히 한국 아니네 ^^ 한국 속 중국 = 개쌍도!

재밌어요
 공유할래요
 아무생각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불쾌해요
 신고해요

ID : 차별의 세계

감자들, 감자만 먹어서 그런가????

재밌어요
 공유할래요
 아무생각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불쾌해요
 신고해요

- ✓ 흥어, 깡깡이 전라도 지역 사람을 비하하는 말 ✓ 개쌍도 경상도 지역을 비하하는 말
 ✓ “다행히 한국 아니네 ^^ 한국 속 중국=○○○” 중국을 비하하면서, 동시에 언급하는 지역 ○○○을 중국과 같이 비하받아 마땅한 곳이라는 이중 비하를 담고 있음
 ✓ 감자 강원도 지역 사람을 비하하는 말

3. “역시 그 지역” (범죄기사에 달린 댓글)

조주빈은 남원 출신이 아닙니다 <서울신문>^⑫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의 고향이 전북 남원이라는 가짜뉴스가 확산돼 남원시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26일 남원시에 따르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조주빈의 신상 공개와 함께 온라인에서 조씨의 고향이 전라도 남원이라는 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일간베스트, 트위터 등에서는 그의 고향이 남원이라는 글과 함께 지역을 비하하는 글과 각종 비속어도 등장했다. 그러나 조씨의 실제 고향은 인천으로 확인됐다. 남원시 관계자는 “조주빈이 남원 출신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한데 어떻게 이같은 내용이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는지 진상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인터넷에는 범죄 사건과 특정 지역을 엮어 새로운 혐오를 만드는 양상이 뚜렷하다. 어떤 사건·사고가 특정 지역에서 벌어졌다면, 혹은 범죄자의 출신이 특정 지역이라면 그 지역을 혐오하는 댓글을 다는 것이다. 전국민적 지탄을 받는 사건이었던 소위 ‘N번방’의 운영자에 대해서는 출신 지역에 대한 가짜뉴스까지 만들어지며 지역 혐오표현을 양산했다.

2017년 포털 사이트의 범죄 기사에 달린 댓글을 분석한 〈포털과 지역혐오〉(2018)라는 논문에서도 이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네이버 뉴스에 게재된 기사 중 범죄 기사 687개를 추출하고, 거기에 달린 댓글 20,419개를 분석해보니 지역혐오댓글은 850개(4.16%)에 달했다. 전라도에 대한 혐오표현이 대다수(64.4%)였고, 해당 지역이나 지역민을 대상으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언급하는 유형(스테레오타이핑)이 가장 많았다.

또한 단순히 지역명만 거론하며 부정적 뉘앙스를 전달하는 유형(지역단순명기), 사투리·홍내·비아냥·반어법 등을 동원해 해당 지역을 조롱하는 유형(조롱하기), 해당 지역을 뭔가 다른 곳으로 취급하는 유형(분리하기), 해당 지역이나 지역민에 고유한 이름을 붙이는 유형(라벨링) 등 다양한 지역혐오표현이 존재했다.^⑩

인터넷상의 혐오표현과 그 영향을 분석한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이은주 교수는 이러한 혐오표현의 악영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 번째는 부정적 감정의 전염이다. 혐오표현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유사한 부정적 감정을 빈번하게 경험하게 되는데, 심리학의 일반 공격 모형(*general aggression model*)에 따르면 이러한 경험은 주어진 환경을 해석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공격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왜곡된 현실 인식을 일으킨다. 이은주 교수가 범죄 기사의 댓글과 영향을 분석해보니, 특정 지역에 대한 편견을 담은 댓글(“원래 전라도/경상도 X들이 그렇지”)과 함께 범죄 기사를 보여주고 대도시의 범죄율 순위를 물었을 때, 해당 지역 대도시의 범죄율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3.68%로, 해당 댓글을 보지 않은 사람들(7.09%)보다 배 가까이 높았다.¹⁴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러한 지역혐오 댓글에 반박을 하는 경우 혐오발언의 효과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이은주 교수는 혐오표현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의견과 이를 교정하는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범죄 기사와 특정 지역을 연결하는 악의적인 댓글은 해당 지역에 대한 편견을 강화해 지역 갈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신뢰를 떨어트린다. 또한 단순지역명기나 지역드립 같이 가볍게 보이는 지역혐오는 특별히 교정되지 않고 인터넷 댓글 문화로 번져가고 있다. 그러나 그 안에 숨은 차별의 맥락과 혐오의 태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역에 대한 혐오표현이 유희가 되지 않도록, 차별의 현실에 둔감해지지 않도록 날카로운 견제가 필요하다.



당신은 인터넷에서 범죄기사와 특정 지역을 연결시키는 댓글을 봤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ID : 지역차별러



역시 그 지역 ㅋㅋㅋ

ID : 전라협



까보전~ 그럴 줄 알았다 ㅋ

- ☐ 지나간다
- ☐ 신고버튼
- ☐ 좋아요버튼
- ☐ 반박하는 댓글을 단다
- ☐ 동의하는 댓글을 단다



4. 안산드레아스?

〈어디 사람〉프로젝트가 만난 사람, 오의석씨

“안산에 살 때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거주했는데, 이를 두고 ‘사건사고나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는 편견이 있었다. 안산을 두고 ‘안산드레아스’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 게임 속 우범도시인 ‘산 안드레아스’를 배경으로 총 싸움을 벌이는 게임이 있는데, 안산이 그런 도시처럼 폭력이 발생할 거라고 해서 붙여진 말이다.”

〈어디 사람〉프로젝트가 만난 오의석 씨. 그는 다양한 이주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인천에서 태어나 부산과 김해에 잠시 살다가 안산과 시흥으로 이주한 후 오랫동안 수도권에서 살았다. 지금은 서울에 사는 그는 “지역 차별언어는 나의 일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며 운을 뗐다.

“지역 차별언어를 물어보면 대표적으로 전라도 사람을 ‘흥어’로 부르는 게 떠오른다. 다만 당사자가 아니라 그런지 나의 일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다. 안산에 살 때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거주했는데, 이를 두고 ‘사건·사고나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는 편견이 있었다. 안산을 두고 ‘안산드레아스’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 게임 속 우범 도시인 ‘산 안드레아스’를 배경으로 총싸움을 벌이는 게임이 있는데, 안산이 그런 도시처럼 폭력이 발생할 거라고 해서 붙여진 말이다.”

자신이 사는 지역인 안산을 두고 지역 차별언어를 들었지만, 그는 왜 지역 차별언어를 ‘나의 일’이라 여기지 않았을까? 그는 “워낙 많이

들어서”라고 대답했다. “내가 사는 지역을 두고 이런저런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인지 이러한 편견을 차별로 인지하지 못했다. 오히려 편견을 내면화하고 묵인했다.”

그가 살았던 시흥에도 안 좋은 편견이 있었다. 시흥 근처에 산업단지가 있어 환경오염이 심했는데, 특히 시화호가 산업단지의 오·폐수로 인해 악취가 났다. 주변 공장에서는 매연이 날아들었다. “이런 환경으로 인해 시흥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다. 시흥에 사는 사람들은 수도권에 산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기 어떻게 사냐’라며 편견이 섞인 이야기를 했다.”

그는 이러한 편견에 자주 노출되며 지역에 대한 패배 의식을 갖는 자신을 발견했다. “학생일 때, 타지역에서 순환 근무 온 선생님이 ‘부모님이 이러니까 너희가 이런 거다’라는 말을 했다. ‘우리 동네는 냄새나는 동네다’라는 말이 ‘사회적 위치가 낮거나 충분한 재력이 없기에 서울이 아닌 이곳에서 산다’, 그러니 ‘이 지역은 비난받을 만하다’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오의석 씨는 지역 안에서도 생활 형편에 따라 ‘구별 짓기’를 하는 차별언어를 듣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에서 지역 차별언어가 늘어나는 걸 느꼈다. 단원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사는 지역은 안산에서도 평균 가구소득이 높지 않은 동네였다. 이 때문에 ‘어차피 저 학교 졸업해도 공장밖에 못 가는데 차라리 다행이다’, ‘(유가족이) 돈도 없는데 (지원금이라도) 보상받길 잘했다’는 말이 돌았다.”

오의석 씨의 경험담은 지역 차별언어가 빈곤 혐오와 연결되는 현상을 대변한다. ‘강남’으로 대표되던 지역과 계급을 연결하는 인식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것이다.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를 함께 묶어 ‘노도강’으로 부르는 일은 예사다.

2018년 한 정치인은 “서울에서 살던 사람들이 양천구, 목동 같은 데 잘 살다가 이혼 한 번 하거나 직장을 잃으면 부천 정도 갑니다. 부천에 있다가 또 살기 어려워지면 인천 중구나 남구나 이런 쪽으로 갑니다”라며 소위 ‘이부망천’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당시 인천과 부천을 서울에 비해 가난한 동네라고 언급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그만큼 지역과 계급을 연결하며 지역을 비하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 만연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이부망천’, ‘안산드레아스’와 같은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지역을 비하하고 조롱한다.

지역과 계급을 연결하는 동력은 편중된 집값 상승이다.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6억 원 정도였으나 올해 6월에는 10억 원이 넘었다. 중위 매매가격은 아파트값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가격으로, 시세를 판단하는 지표 중 하나다. 이 지표를 보면 5년 사이에 서울 아파트값이 2배 가까이 폭등한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반년 만에 1억 원이 오르는 경우도 있다 보니, 서울이 아닌 지역은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벼락 거지’ 신세가 된다. 이때 지역 차별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현실’과 맞닿아 있다. 현실의 불평등을 쉽게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불평등과 차별을 담고 있는 표현들은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안산드레아스, 이부망천, 마계인천, 고담대구...



지역 비하를 담은 신조어,
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아요.



지역 비하를 담은 신조어 대신, 애정을 담아 내가 사는
지역의 별명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

5. 대구 코로나?

대구·경북 꺼리거나 ‘빚장’.. 차별·기피에 두 번 운다^⑤

“이번 사태는 대구 사태다” “코로나19 위협이 대구·경북서만 아주 심각한 이유는 지역민들의 엄청난 무능 탓” 코로나19가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하면서 대구 시민들에게 혐오의 화살이 돌아가고 있다. 인터넷상에는 휠체어를 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살아?’라고 묻고, 타고 있는 사람이 ‘대구’라고 말하자 휠체어를 절벽으로 밀어버리는 그림 등 혐오 표현이 난무한다.

지난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구 폐렴을 종식하려면 김○○(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범인) 셰프님을 투입해야 한다”는 제목의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삭제했다. 해당 글쓴이는 “코로나는 열에 약하다”며 “다시 한 번 지하철에 불을 질러 코로나를 잡아야 한다”고 했다. 방심위는 해당 게시글이 특정 대상을 차별·비하하거나 조롱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혐오 표현으로 보고 ‘해당 정보의 삭제’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세계일보>

모두가 안심했을 때였다.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 이후 28번까지 확진자가 늘었지만, 며칠간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자 안도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었다. 그러나 2020년 2월 18일 대구에서 31번째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분위기는 급변한다. 31번 확진 이후 신천지 대구 교회를 중심으로 대구에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68일 만에 대구·경북의 누적확진자는 8000명 대를 돌파했다. 국내에 처음 발생한 1차 대유행이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라는 전례 없는 감염병의 대유행은 순식간에 사람들을 공포와 불안에 몰아넣었다. 이때 첫 감염병 대유행이 발생한 대구 지역은 유례없는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식당에 ‘대구·경북 주민 출입금지’가 붙어있거나, 화물차 역시 대구 번호가 찍혀있으면 운송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다.^⑯ 대학가에서는 대구·경북 출신이라고 원룸을 구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었다.^⑰

혐오표현도 증가하였다. ‘대구 좀비들 상경을 막아라’, ‘계엄령 선포하고 확진자들 처벌하라’ 등 대구를 향한 지역 차별언어가 급증했다. 2020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코로나19와 혐오의 팬데믹>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대구에서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인 2020년 2월 4주 차에 코로나19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데, 지역혐오 분류에서 대구에 대한 언급 비중이 높았다. 대구와 폐렴을 연결해 ‘대구 폐렴’이라고 부르거나, ‘대구 봉쇄’를 주장하는 차별언어도 양산되었다.

⑯ 대구MBC뉴스, 2021.3.8. youtu.be/Mh3a21vieD8

⑰ 경기일보, 손원태, 2020.3.4. 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0583

코로나19 관련해서 대구 사람 대다수는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고 소수의 실수로 방역망이 깨진 경우에 대해서 “역시 대구니까” “신천지도 많고” 이런 차별이 있었다. “대구를 봉쇄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그러나 대구가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태원으로부터 시작된 수도권 확산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게 반응한다. 이것 또한 지역 차별이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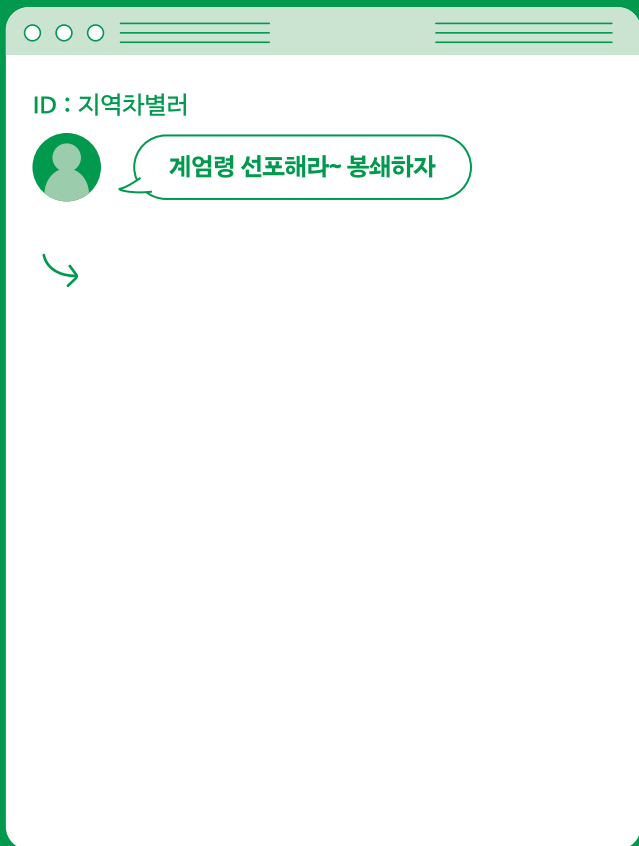
-〈어디 사람〉 설문 응답 중

〈어디 사람〉 프로젝트에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대구에 대한 차별언어 경험이 들려왔다. 수도권의 집단 감염 발생에는 비교적 관대하지만, 지역의 집단 감염 발생에는 쉽게 ‘봉쇄’를 주장하는 현상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대목이다. 또한 대구를 향한 혐오와 차별 현상은 누구나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례기도 하다. 재난 상황을 함께 헤쳐나갈 동료로 지역을 인식하지 않고, 배척하고 타자화하는 분위기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다행히 2월 말부터 3월까지 이어진 ‘힘내요 대구’ 캠페인으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전국에서 방역물품과 인력을 지원하며 응원이 쏟아지자 대구에 대한 부정 언급은 감소하고 긍정 언급이 증가한 것이다. ‘대구 폐렴’과 같이 편견을 만드는 표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곧 ‘대구 봉쇄’와 같은 과격한 주장도 사그라들었다. 이 변화의 교훈은 소중하다. 지역 차별언어는 혐오표현에 대한 견제와 적극적인 지지로 이겨낼 수 있다.



○○지역 집단 감염 기사에 누군가 그 지역을 봉쇄하자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반박하는 댓글을 달아볼까요?



내 행동을 주변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공적 담론을 생산하는 것은 규제나 처벌보다 효과가
높다고 하니까요! :)

3

PART

나가며 :



⊘ 지역 차별언어,
☀ 출구 💬
찾을 수 있을까요?

당사자의 눈과 귀로 발견한 지역 차별언어

〈어디 사람〉 프로젝트에 모인 450명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에 미세하게 퍼진 지역 차별언어와 혐오와 뒤섞여 일상이 된 지역 차별언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는 무심결에 지역을 차별하는 말을 쓰고 있었다. “이번 연휴에 본가 간다고? 시골 잘 다녀와”라는 말은 수도권 외 지역을 시골로 여기는 인식이 숨어있었고, 지역어를 쓰는 사람에게 “말투 너무 귀엽다. 근데 이번 발표 때는 고쳐줄 수 있어?”라는 말에는 ‘사투리는 고쳐야한다’는 차별이 있었다. 차별이라고 느끼지 못했지만 차별이 될 수 있는 말을 돌아보게 됐다.

〈어디 사람〉 프로젝트에 들어온 경험담을 여러 차례 분류하는 작업을 하면서, 거칠게 나눠보면 지역 차별언어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나는 먼지 차별이다. 먼지 차별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아주 작은 **micro 차별aggression**, 공격이 된다는 말이다. 먼지 차별은 대개 사소하고 미묘한 표현이지만 대상자에게는 상처가 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미세한 차별 구도를 공고하게 한다. 먼지 차별은 주로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과 서울 중심주의로 인한 차별 인식에서 비롯된다.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만큼, ‘서울공화국’의 현실이 단단한 만큼 이러한 차별언어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다른 하나는 혐오표현이다. 프로젝트에 들어온 응답 중 많은 표현이 전라도에 대한 혐오 표현이었다. 전라도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차별의 역사를 살펴보면, 혐오가 만연한 현실을 재확인하였다. 젊은 세대 중에 전라도 사람에 대해 ‘믿을 수 없다’라거나 ‘통수’라고 말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윗세대로부터 그런 표현이 아직 사용되기에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러한 혐오표현은 더 이상 쓰지 말아야 한다는 단호한 사회적 메시지가 필요하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에 대한 혐오표현이 ‘드립’이자 놀이가 됐다는 것이다. 지금도 포털과 유튜브, SNS에는 쉼 없이 지역에 대한 편견과 혐오표현이 쏟아지고 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댓글 창으로 여기기보다 ‘왜 이렇게 지역 혐오표현이 만연할까?’, ‘왜 문제의식이 사회적으로 결집하지 못할까?’와 같은 질문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지역 차별언어에 대항하기 위한 제안들

〈어디 사람〉 프로젝트를 통해 알게 된 지역 차별언어의 현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젊은 세대로 갈수록 완화되고 있으나 사회 전체로 봤을 때 여전히 존재한다. 둘째, 지역을 둘러싼 불평등이 심화하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서울공화국’으로 불리는 인프라 집중 현상이 전국의 인구와 자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의식 부재는 서울 중심적인 언어표현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지역은 자신을 설명할 언어나 이미지가 부족하다. 여전히 서울 외 지역은 모두 ‘시골’로 여겨지고 있으며, 서울에 비해 부족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넷째, 인터넷 상의 지역 혐오표현은 기존에 있던 여러 혐오와 결집하여 인터넷의 댓글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인터넷에 있는 전라도와 관련된 콘텐츠에는 전라도 비하 댓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비하가 꼭 전라도뿐만 아니라 대구나 인천 등 사건·사고가 있는 지역 어디에나 달라붙는다.

차별적 언어표현의 이면에는 현실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지역의 언어와 이미지를 전달한 매체가 부족한 현실, ‘서울공화국’의 공고함,

독세하고 있는 혐오문화가 바로 그것이다. 이에 따라 언어 외적으로는 지역의 다양성을 담고 보여줄 수 있는 매체와 프레임이 필요하고, 서울과 도시 중심적인 판단을 지양하는 에티켓이 필요하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불평등한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혐오문화와 혐오표현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다.

언어표현 내적으로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쓰지 말아야 한다’는 솔루션이 유일하다. ‘전라디언’, ‘홍어’, ‘개쌍도’, ‘멍청도’, ‘지잡대’와 같은 혐오와 비하표현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지역 혐오 댓글에 대한 이은주 교수의 연구 결과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대구를 향한 지역 차별이 해소되었던 경험을 곱씹을 만 하다. 혐오표현에 반박하고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지역에 연대와 지지를 보낼 때, 차별언어는 사라질 수 있다.

또한 지역에 대한 편견이 담겨 있는 차별언어는 편견을 제거하는 언어사용을 제안할 수 있다. <어디 사람>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지역 차별언어 대항 표현은 다음과 같다.

명절에 ‘시골’ 잘 다녀와



명절에 ‘고향/본가’ 잘 다녀와

서울 올라간다, 지방 내려간다



서울에 간다, 지역에 간다

사투리 고쳐야지



네가 편한 대로 말해

존스러운 사투리, 구수한 사투리



사투리에 대한 수식어를 쓰지 않는다.

지방



지역 (지방은 중앙과 대비되는 공간으로서 지역을 일컫는다.)

어디 사람이세요?



‘묻지 않는다’



내가 들었던 지역 차별언어와 다르게 쓸수 있는
표현을 적어보세요.

사회적으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써야 한다. 최근의 지역 혐오표현은 빈곤에 대한 혐오,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 등 사회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혐오와 결합하고 있다. 이는 혐오와 차별이 하나의 영역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혐오는 교차적이고, 하나의 허용된 차별은 또 다른 차별을 낳는다. 누구나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고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차별적 언어표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더 많은 사람의 참여와 논의가 절실하다. <어디 사람> 프로젝트가 담지 못한 지역 차별언어와 대안은 당신의 생각과 행동으로 채워질 수 있다. 어느 지역에 태어났든, 어느 지역에 살고 있든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이 명제가 지켜지는 존중 받는 삶을 위한 <어디 사람> 프로젝트의 마지막 장은 바로 당신의 참여다.

☑ 더 깊이 생각해보기

내가 생각하는 지역 차별언어의 요소는?

고정관념 집단성 동일성

편견 지역감정 정치

비난 경쟁

비하 기준 무례함

모욕 정체성

구분짓기 획일화

혐오 불이익

출세우기 불균형

갈등 정상성

편가르기 폭력

불평등 시대착오

자본주의

내가 생각하는 요소 적어보기



동그라미를 쳐서 선택해보세요!

지역 차별언어에 대항하기 위한 요소는?

시민 의식 차이

존중 가능성

소통 나답게 민주주의

신뢰 평등

배려 다양성 기회

블라인드 교육 균형

언어감수성 미디어 캠페인

대항언어 역지사지 상상력

내가 생각하는 요소 적어보기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지역 차별언어 〈어디 사람〉 설문 결과

조사개요 후원회원 대상 설문 121명, 시민 대상 설문 307명,

추가지역 대상 설문 12명 온라인 진행

조사기간 후원회원 대상 2021년 4월 26일 / 시민 대상 6월 4일 ~ 30일

지역 차별경험 정도

5점 만점(일상적 경험)



지역차별 경험이
전혀 없다

1점

평균 2.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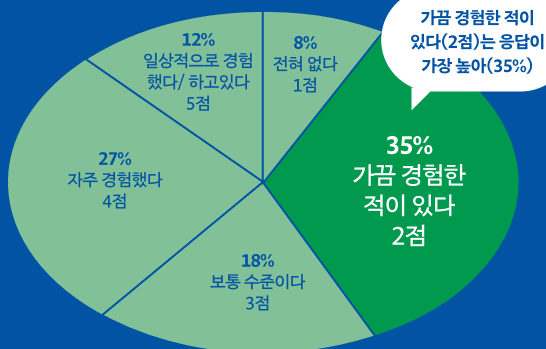
92%가 지역
차별언어 경험



일상적으로
차별을 경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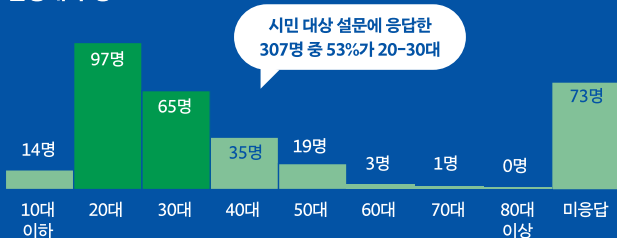
5점

차별경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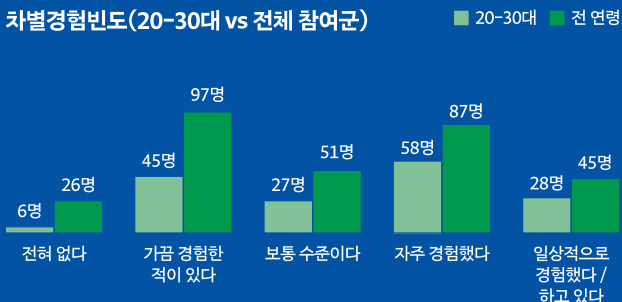


나이에 따른 지역 차별경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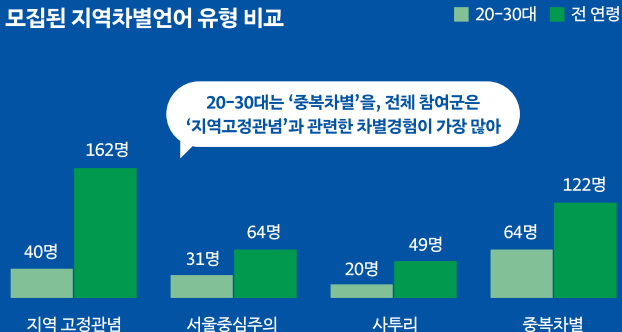
연령대 구성



차별경험빈도(20-30대 vs 전체 참여군)



모집된 지역차별언어 유형 비교



*모집된 언어는 여러 형태의 차별이 교차, 중첩되어 나타나 무리하게 유형화하지 않았음, 이는 여러 형태의 차별이 교차하여 존재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

지역 차별언어를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책, 책, 책



왜요, 그 말이 어때서요

글 김청연 | 동녘

누군가 학번을 묻는다. 평범하고 속뜻 없는 질문일지 모르지만,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상처가 될 수 있다. 나도 모르게 하는 차별의 말들, 바로 ‘먼지 차별’이다. 교육 매체의 취재 기자로 일하는 저자는 이런 말들이 남기는 ‘이상한’ 느낌을 놓치지 않았다. ‘급식충’,

‘다문화’, ‘시골뜨기’, ‘짹새’ 등 우리가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차별과 비하의 언어들을 모으고 그 속뜻을 파헤쳐 바람직한 언어 사용을 제시한다. 지역에 관해서는 ‘휴거’와 같은 주거지 단위의 차별부터 ‘인서울’, ‘촌뜨기’, ‘통수’ 등 다양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지역 차별언어를 소개하고 왜 이러한 말들이 문제인지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일상 속 차별언어 사용을 재현한 4컷 만화는 나의 언어 사용 역시 돌아보게 하고, 저자가 강조하는 예민한 언어 감수성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한국 사회의 차별언어

글 이정복 | 소통

대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정복 교수가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 언어를 체계적으로 모으고 분석한 책이다. 크게 성차별, 인종 차별, 장애 차별, 지역 차별, 직업 차별, 종교 차별을 다루며 기타 차별로 계층 차별, 나이 차별, 외모 차별, 성 소수자 차별도 빼놓지 않고 다룸으로써 한국 사회에 만연한 차별 의식을 드러낸다. 특히

지역에 대한 차별언어를 다루는 연구가 극히 적은 상황에서 〈한국 사회의 차별 언어〉는 지역 차별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유형화했다는 점에서 소중하다. 차별 언어에 대한 정의부터 뜻풀이, 차별 표현의 발생 원인과 대책까지 제시하며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 언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돕는다.



문화다양성을 해치는 말 모음집! 말모이

글 말모이 | (재)김해문화재단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차별언어 입문서.

2019년 김해 무지개 사업으로 모인 시민 서포터즈 ‘말모이’가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차별 단어들을 모았다. 〈말모이〉는 차별언어를 ‘문화 다양성을 해치는 말’로 제시하며, 시민 당사자가 직접 일상에서 만난 차별언어를 모으고 이에 대한 대체 단어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해친다는 정의로 차별언어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세상의 중심을 ‘나’가 아닌 ‘타인’으로 둘 때 다양성을 회복할 수 있음을 역설하는 것 역시 차별언어의 대안으로 곱씹을 만하다. 지역에 대한 문화 다양성을 해치는 말로는 ‘명청도’, ‘견상도’, ‘네다홍’ 등을 소개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체 단어보다 혐오를 멈춰달라고 당부한다.



발행일 2021년 9월
발행처 희망제작소
발행인 정지강
만든 이 심하림, 이음팀

자문위원 고길섭 김상봉 김진해 김청연 손제희 조가현
디자인 더디앤씨 www.thednc.co.kr
문의 02-6395-1415 / give@makehope.org

희망제작소는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의제들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민간독립연구소입니다.
시민의 아이디어를 사회혁신으로 연결하고,
주민과 함께 지역자원을 찾아 지역의 힘을 키웁니다.
우리 시대 공공리더와 시민리더를 성장시키고,
지속가능한 시민안전사회를 모색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꿈꾸는
시민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희망제작소에는 크게 사용됩니다.
민간독립연구소인 희망제작소가 기업이나, 정부가 아닌
시민을 위한 연구와 교육활동을 시작하는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지금 함께해주세요.

후원계좌 하나은행 271-910002-36004 (재)희망제작소

시골



서울말



잘하네~